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2, pp.67-76, May 31,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67
JCCT 2019-5-9

청소년의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Adolescents' Depression on their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강석임*, 이윤정**, 정명숙***

Seok-im Kang*, Yun-jeong Lee, Myung-sook Chung*****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우울이 공동체의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C지역의 청소년 수련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37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울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증진에 공동체의식 함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교육현장에서 정규 커리큘럼을 통해, 그리고 효율적인 봉사활동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갖춘 지역사회복지기관들과 학교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우울, 공동체의식, 삶의 만족,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that depression of adolescents have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rough mediating variable called sense of community. To collect data,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371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volunteer activity at Youth Training Center located in C provinc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for mediating effect,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sense of community not only directly affect life satisfaction of the adolescents, but also work as a significant mediating variable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sense of community was found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ways of developing effective measures to promote the sense of community of young adolescents in educational field was discussed, such as developing various experience-activity programs and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which support such activity programs.

Key words : adolescents, depression, sense of community,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정회원,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제1저자)
**정회원,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교신저자)
***정회원,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공동저자)
접수일: 2019년 2월 18일, 수정완료일: 2019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12일

Received: February 18, 2019 / Revised: March 10, 2019
Accepted: April 12, 2019
*Corresponding Author: leeyj@kkot.ac.kr
Dept. of Nursing , Kkottognae Univ, Korea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이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이 시기를 건전하게 보내고 바람직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중요한 일이다[1] .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도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 헌장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에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1]. 청소년기에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은 성인기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삶에 더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이는 데 우울과 공동체의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우울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2, 3], 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4, 1, 2, 5, 3]. 입시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청소년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계 형성보다는 각자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또래청소년이나 주변의 중요인물들과 충분히 상호작용하면서 연대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낮은 것은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어려운 생활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6, 7, 8, 9, 10].

우울과 공동체의식은 이와 같이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 두 변수는 상호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오민아와 조혜영(2016)은 중학생의 우울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에서 우울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1]. 사실 우울한 청소년은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낮아지고 활동수준도 낮아지게 되므로 주변사람들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나 동질감을 형성하기 어려우며, 소속감을 갖거나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를 수용하는 마음자세를 갖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12]. 우울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대감과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울과 공동체의식이 청소년기 삶의 만족수준에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우울이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놓고 볼 때, 공동체의식이 우울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울은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결과 삶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청소년기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체의식이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인지적 변화로 인한 적응문제, 그리고 진학 및 진로와 관련된 많은 도전과제들로 인해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2015년도에 실시한 사회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교공부 35.3%, 취업 26.5%, 외모와 건강 16.9% 순이었다. 또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고,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1.0%이었으며, 가출 이유로는 부모나 가족과의 갈등이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3].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우울은 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살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 3].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지혜 등(2016)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생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고[5], 김아름(2011)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등학생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1]. 장택용(2015)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3]. 문재우(2012)는 전국 12개 시도의 초·중·고등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우울이 삶의 질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다[2] . 또한 한 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이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

공동체의식이란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 및 구성원들 간의 관계적(직업, 영성 등) 특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구성원 각자가 서로에게 그리고 집단에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느끼며, 개별 구성원의 욕구가 공동체 안에서 충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3, 14].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생활해나가는 과정에서 성장을 통해 학습된다[15].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계 형성보다는 각자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전력 질주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또래친구들이나 주변의 중요인물들과 상호작용하며 연대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에 대한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이 투철한 청소년일수록 삶에 대한 만족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6, 8, 7, 9, 10]. 또한 국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이 삶에 대한 만족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였고[16, 17, 18], 성인과 노인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9, 20, 21, 22]. 이상의 연구들은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소년들은 삶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학교적응력이 뛰어나고[5], 학교생활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24]. 이와 같이 공동체의식은 청소년들이 삶 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뿐 아니라 학교생활만족도 촉진하는 등 청소년기의 삶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3.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연구들이 우울과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각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울이 청소년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공동체의식이 청소년기 우울과 삶의 만족이라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공동체의식은 우울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변수의 역할을 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는 등, 최근 들어 공동체의식의 긍정적 매개효과를 밝히는 연구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25]과 사회참여활동[15]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며, 청소년의 우울[12]과 봉사활동[26]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수준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동체의식의 매개역할을 통해 삶의 만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우울과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라는 것을 밝힌 연구들은 많지만, 공동체의식이 청소년기의 우울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동체의식이 우울과 청소년기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

수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우울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공동체의식 함양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에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은 성인기의 삶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려 청소년기의 적응을 돕고 발달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C지역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청소년수련원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유선이나 메일로 미리 파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은 봉사활동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배부된 구조화된 설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다수 문항에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9부를 제외하고 37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우울과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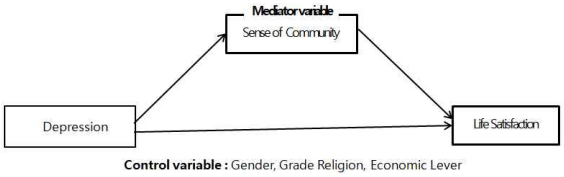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2. 측정도구

1) 삶의 만족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조명한·차경호(1998)가 수정 보완한 한국판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27].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으로 나타났다.

2) 우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을 사용하였다[28]. 하위요인은 우울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 및 행동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이며, 긍정적 감정 문항은 역채점되었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으로 나타났다.

3)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척도는 김혜래(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총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29]. 이 척도는 평소 이타적 도움, 양보 및 나눔을 행하는 정도,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원조하거나 약자를 배려하거나 타인의 일에 진심어린 축하를 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을 위해 SPSS/WIN 21.0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해 AMOS 20.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절대적합지수인 x^2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고, 증분적합지수는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s), TLI(Tucker-Lewis Index)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과 기술통계

대상자의 삶의 만족과 우울, 공동체의식의 수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점수는 평균 3.24점으로 중간 값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공동체의식 점수는 평균 3.60점으로 중간 값보다 조금 높았으나 우울 점수는 평균 1.72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우울의 하위요인별 점수의 평균은 긍정적 감정이 2.46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행동둔화 1.75점, 우울감정 1.47점, 대인관계 1.35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모형

본 연구의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했다. <표 3>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적합도는 x^2=151.938(df=41), p=.000으로 카이제곱 통계량이 유의하였고, 대안적 절대적합지수인 RMSEA가 0.086으로 나타나, .RMSEA 〈.10의 범위에 있어 보통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증분적합지수인 NFI=.920, IFI=.941, TLI=.920으로 나타나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으므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오차는 모두 양으로 나타나 오차나 잔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삶의 만족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분석

1) 구조모형 분석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구조모형 분석결과를 살펴보면<표4, 그림2>, 모형적합도는 x^2=213.927(df=73, p=.000), NFI=.901, IFI=.932, TLI=.901, RMSEA=.072로 나타나 모형이 비교적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각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β=-.312, p 〈.001) 공동체의식 점수도 더 높았으며(β=-242, p 〈.001), 공동체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407, p 〈.001).

표 1. 변수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Table 1. Correlation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variables.

Variables	Life satisfaction (1)	Sense of community (2)	Depression			
			Depressed feelings (3)	Positive feelings (4)	Slowed physical activity (5)	Interpersonl relationship (6)
(1)						
(2)	.405***					
(3)	-.296**	-.127*				
(4)	-.449*	-.282**	.318**			
(5)	-.333**	-.222**	.739**	.464**		
(6)	-.157**	-.058	.692**	.245**	.559**	
M	3.24	3.60	1.47	2.46	1.76	1.35
SD	.728	.611	.536	.623	.457	.599

표 2.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Table 2. Eigenvalue of Measurement Model

Variables		B	β	t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1	.752	.683	11.896***
	Life satisfaction 2	.920	.811	13.853***
	Life satisfaction 3	.968	.804	13.758***
	Life satisfaction 4	.913	.754	13.024***
	Life satisfaction 5	1.00	.696	
Sense of community	Other-oriented	.904	.899	9.173***
	World-oriented	1.00	.774	
Depression	Depressed feelings	1.00	.904	
	Positive feelings	.545	.424	8.106***
	Slowed physical activity	.775	.822	17.790***
	Interpersonal relationship	.898	.727	15.519***

표 3. 측정모형의 모형적합지수
Table 3.Model Fitness Statistics for Measurement Model

x^2	p	RMSEA	NFI	IFI	TLI
151.938 (df =41)	.000	.086	.920	.941	.920

표 4.구조모형의 모형적합지수
Table 4. Model Fitness Statistics for Structural Model

x^2	p	RMSEA	NFI	IFI	TLI
213.927 (df =73)	.000	.072	.901	.932	.901

표 5. 효과분해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Total effect	Direct	Indirect
Depression→ Sense of community	-.242**	-.242**	-
Depression→Life satisfaction	-.411**	-.312**	-.099**
Sense of community→Life satisfaction	.407**	.4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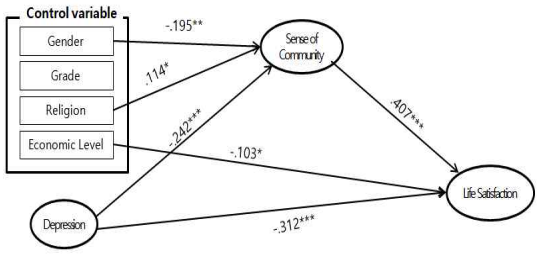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
Figure 2. Structural Model

2)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들의 우울이 공동체의식을 통해 삶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간접효과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청소년들의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체의식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트스트랩 결과
Table 6. Bootstrapping

Indirect effect path	Standardization effect	Standard error	Modified confidence interval		Mediating effect
			Lower	Upper	
Depression →Sense of community → Life satisfaction	-.099	.030	-.051	-.177	Partial mediation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우울감이 공동체의식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삶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삶에 더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우울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1, 2, 3, 4, 5]에서도 일관성 있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제대로 성장·발달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우울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도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공동체의식이 투철할수록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선행연구들[6, 7, 9]이 보고하고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우울은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와 관련한 이 결과는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동체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공동체의식이 낮아지고 공동체의식이 낮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지만, 우울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공동체의식을 높여준다면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일정 부분 차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청소년기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체의식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청소년들의 교류활동, 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등의 다양한 참여활동과 체험활동을 들고 있다[30, 31, 32]. 또한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30], 또래 친구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공동체의식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31]. 홍나미(2015)는 봉사활동이 공동체의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그 기관의 특성에 대해 미리 안내하고, 단순히 봉사활동 여부, 횟수, 시간 등을 평가하기보다는 봉사활동의 준비, 활동과정, 활동에 대한 피드백 등을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26].

Arthur(1999)는 청소년기의 공동체의식 함양이 발달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지역사회봉사가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3] .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공동체의식 고취가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 건전한 성장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Arthur(1999)가 주장한 대로 교육현장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으로 청소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로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은 이 시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는 청소년들이 학업 이외의 다른 활동에 관심을 가질 시간적·정신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모두가 학업에만 몰두하는 획일화된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그 결과 학교는 더 이상 청소년기의 올바른 과업 달성을 위한 환경으로 적합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34]. 이와 같이 성적과 입시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체험활동의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심각할 정도로 낮다. 공동체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서히 형성되고 습득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35, 36],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이 수년간의 학교생활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고 그 결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잘 갖춘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효과적인 체험활동 운영 및 공동체의식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이 원활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교육현장에서 정규 커리큘럼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몫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수준은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도 특히 성별과 종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공동체의식 점수가 더 높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도 성별[6, 26]과 종교[6, 7]의 영향력에 대해서 본 연구와 동일한 패턴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때 이런 변수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공동체의식이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준 본 연구와 유사하게, 최근 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25]과 사회참여활동[15]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수로 작용하며,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12] 또는 봉사활동[26]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의식은 노인의 환경무질서 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37]. 공동체의식이 이처럼 다양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는 이 변수가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간의 삶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공동체의식 함양의 긍정적 효과가 삶의 만족 증진 효과를 넘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본다면 청소년기에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우울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따라서 우울의 효과와 관련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즉 바닥효과(floor effect)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간에 우울 점수에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기는 했으나 우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연구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원 한 곳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표본 수의 제약으로 인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다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 자체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봉사활동 시간 등을 고려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울이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공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식 함양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A. R. Kim.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adolescent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1.

[2] J. W. Moon. “The Effect of obesity, depression, self esteem, body imag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13 No.2, pp.119 - 146, 2012.

[3] T. Y. Jang. “A Study on th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s of the youth mental health, depression and stress”, Doctoral dissertati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2015.

[4] S. L. Kang · B. S. Park · J. M. Lee · G. S. Choi.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stress of children/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family on life satisfaction: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and local community suppor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32, pp. 137-157, 2015.

[5] J. H. An · Y. D. Yun · H. S. Lim. "The Life Satisfactio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Dat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33, No.2, pp. 197-208, 2016.

[6] G. Y. Kang · Y. M. Jang. "A Study on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0, No. 1, pp. 97-123, 2013.

[7] H. J. Lee. “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Religious Activities, Community Spirit, Social-emotional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 Comparison of Christianity and Other Religion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Vol.48, pp.79-111, 2016.

[8] S, H. Cho · S. Y. Park. “Life Satisfaction Factors of Early Adolescents”,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23, No.4, pp.801-818, 2015.

[9] Y. K. Hwang.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youth house, school and community Impact on the satisfaction of life”, Master's Thesis,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6.

[10] E. J. Kim · S. S. Le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High School Student's Empathetic School Community Competency,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Wellbeing"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5, pp.917-936, 2018.

[11] M. A. Oh · H. Y. Jo.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Korean Youth's Social Withdrawal, Depression and Community Sense Using Latent Growth Model : A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Valu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5 No.1, 2017.

[12] Y. R. Woo · C. R. Nho.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Solidarity between Emotional and Aggressive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Vol.16, No.2, pp.203-227, 2014.

[13] McMillan, D. W.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215-325. 1996.

[14] Petersen, N. A., Speer, P. W., and McMillan, D. W.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1): 61-73. 2008.

[15] J. S. Park.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adolescents' training activity, voluntary service, self-esteem and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7, No.4, pp. 157-182, 2010.

[16] Bramston, P., Bruggerman, K., and Pretty, G., "Community perspectives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bility, Development & Education, 49(4): 385-397. 2002.

[17] Petrillo, G., Capone, V., & Donizetti, A. R., "Validation of a self-report measure for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4(3): 399-409. 2016.

[18]Pretty, G., Conroy, C., Dugay, J., Fowler, K., and Williams, D.,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evance to adolescents of all ag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4): 365-379. 1996.

[19] H. K, Lee · S. H. Cho · J. H. Kim · Y. K. Kim · H. I. Choo. "Influence of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Sense of Community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for Middle-aged and Elderly Residents Living in a Rural Commun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4, No.6, pp.608-616, 2014.

[20] Gattino, S., De Piccoli, N., Fassio, O., & Rollero, C., "Quality of life and sense of community: A study on health and place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811-826. 2013.

[21]Prezza, M., Amichi, M., Roberti, T. and Tedeschi, G., "Sense of community referred to the whole town: Its relations with neighboring,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nd area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1): 29-52. 2001.

[22] Prezza, M. and Costantini, S.,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Investigation in three different territorial context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8: 181-1, 1998.

[23] S. C. Ock · H. S. Park.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mmunity Consciousness and the Satisfaction of the School life on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3, pp. 37-58, 2016.

[24] C. S. Yoon · H. S. Kim. "The Relationship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 on Physical Education Classes, Sense of Community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6, No.2, pp.803-813, 2017.

[25] H. S. Kim · Y. C. An · J. Y. Song. "The Effect of Youth Volunteer Activities on the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4, No.1, pp. 305~325, 2018.

[26] N. M. Hong.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on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self-esteem and community spirit", Forum for Youth Culture, Vol 44, pp.157-180, 2015.

[27] M. H. Cho · K. H. Cha. "Comparative Study of the Quality of Life between Countries," ,jibmundang:seoul, 1998.

[28] K. K. Chon · S. C. Choi · B. C, Yang. "Integrated Adaptation of CES - 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6, No.1, pp.59-76, 2001.

[29] H. R. Kim. " Adolescents'Psycho-social traits through the voluntary program of KKottongnae Love Education Center", The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10, pp. 33-58, 2015.

[30] H. J. Kim. "The effect of Latent Classes in Adolescents'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on their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8, pp. 195-214, 2014.

[31] S. A. Ryu. "The longitudinal effect of victimized experiences and sense of community on emotional and physical development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11, pp. 87-111, 2016.

[32] H. J. Park · J. S. Lee · Y. S. Lee. "The Analysis on the Effects of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 on Student's Sense of Commun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3, No.2, pp. 235-257, 2015.
[33] Arthur, J., 1999. "School and community: The communitarian agenda in education". London: Palmer Press.
[34] H. I. Choi · Y. K. Moon. "Impact of Community Spirits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45, pp.189-209, 2013.
[35] G. N. Park.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a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6, No. 10, pp. 273-306, 2009.
[36] J. S. Ha. "A Study on the University Students' Voluntary Activities and Sense of Commun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2012.
[37] S, R. Jung. "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in the relation of Neighborhood Disorder and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 Implications for Christian Counseling", Theology and Praxis, Vol.56, pp.471-492, 2017.